

국내산 둔갑 “게 섯거라”

전북농관원,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유통,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자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1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00여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점검에 나선다.

먼저 16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

한다.

이어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8개 반

시아미바전답변(19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카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등 항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폐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확인한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소고기, 꽈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미늘, 감자 등 14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북농관원은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치고,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8개 반 시아미바전답변(19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카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거짓 표시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김민우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정 사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특보에 의하면 전북지역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정체전선에 의해

/뉴스



전북농관원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군산 지역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관내 취약지구를 점검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농업분야 피해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황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군산 지역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관내 취약지구를 점검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군산에서는

일부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논콩과 벼 등의 농작물이 침·

관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현장을 점검한 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 병충해에 대비한 공동방제 등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합원·농업인 복지 증진에 ‘호신’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이 지난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청립 61주년 기념식에서 농업인 협동발전 유공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원철 조합장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활력화 등을 위해 맡은 바 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안농협은 △전 조합원 대상 영농자재구입권 지원, △천년의 솜씨 부안 노을감자박스 무상지원, △보리계약재배농가 수매용토백 무상지원, △블루베리·스마트팜 딸기작목반 상호 무상지원, △온도제어봉 가 퇴비 무상지원, 등 농업인 농업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실익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여 비

사랑의 밀반찬 나눔, △매년 11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지역 경로당 사랑의 쌀 나눔, △22년간의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1,943명 11억2,000만원), △이동선택자방을 이용한 빨래봉사 등 품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대학, 여성대학, 남성대학 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농업인들의 건강과 활동력을 위한 게이트볼대회 개최와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대표 기관으로서 조합원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과 전 조합원의 혼신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안농협을 새로운 농협 다시 도약하는 농협 두배로 희망을 드리는 농협으로 틸바꿈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서부산림청,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매 분기별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 훈련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국유림영업단(26개 단), 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07명이다.

또한 교육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함에 따라 근로자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민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식품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77명 현장채용 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오는 23~25일까지 전북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입주기업 참가를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돋는다.

SCDD(주) 유니크비이오텍(주) 등 13개 입주기업이 참가해 사무직·생산직 등 77여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을 위해 채용전문 구직 사이트인 ‘서부산림청’(www.sarain.co.kr, 국가식품클러스터 검색)과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사이트(jobfair.co.kr)를 통해 구직자 접수가 가능하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현장 방문하면 당일 채용상담과 면접도 이뤄진다.

/뉴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